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 연평도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비주얼저널리즘 전공

문정숙

2014년 8월

아! 연평도

지도교수 양 종 훈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비주얼저널리즘 전공

문정숙

2014년 8월

문 정 숙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정임 (印)

심사위원 임준형(印)

심사위원 양종훈(印)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2014년 8월

그날·The Day

사건개요

2010. 11. 23 14:30분경 북한에 의해 인천군 옹진군 연평도가 포격을 맞았다. 170여발을 퍼부어 해병대 장병 2명과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2명이 참변을 당했다.

마을과 군부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산불이 발생하는 등 조용했던 섬마을은 순식 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주민 대부분은 섬을 탈출해야만했다.

북한은 해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도발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전면전'을 들먹이며 우리정부를 협박하고 2011. 8월이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NLL) 해상에 여러차례 기습 포격을 감행해 주민들을 또 다시 불안에 떨게 하였다.

08 | 09

사건정리

2011. 1월 섬에 다시 들어온 주민들은 연평초교 운동장에 임시로 지은 약 5.5평 규모의 비좁은 조립식 주택에서 거주 하였으나, 5월부터 완파된 주택과 상가 등 총 32채를 건축물 대장에 등기된 면적대로 다시 지어 주어 32가구 50여명은 예전 집터에 지어진 보금자리로 돌아 왔다.

도발 1주년을 맞는 11월 23일 고 서정우하사,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이들의 부모와 가족, 해병대 장병등이 참석한 가운데 흉상 제막식 및 추모식이 진행되었다.

국민성금으로 35명이 탈 수 있는 연평도의 첫 마을버스가 마련되어 운행 중이다. 또한 100억여원을 들여 주민 200-500명이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는 현대식 대피 시설 7곳에 자체발전, 급수시설과 조리대, 화장실등도 설치해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열흘이상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대피소가 완공됐다.

포격 2주기를 맞아 북한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 주택 자리에 지상 2층 규모의 안보교육관이 준공됐다. 불에 탄 가전제품, 부서진 자전거등이 남아있는 다른 주택 자리는 도발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보존하기로 했다.

연평도 사건의 상흔과 치유

2010년 11월 27일.

진눈깨비가 내리던 어느 초겨울이었다.

성남시 화장터에서는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늠름했던 청년들이 한 줌의 재로 돌아온 차디찬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던 그 날...

연구자는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을 직면했던 바로 그 날,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하여 과 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였다. 3년간 북한의 포격 이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 과정을 '상흔' '귀환' '치유'로 나눠 사진으로 담아냈다.

제1부 '상흔' 은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이 가해지던 그 날의 충격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연평도에 포격이 있던 그 날,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직시해야만 했다. 포격사건 이후 그 곳은 무섭고 불안한 섬, 그 이상도그 이하도 아닌 곳이 되었다.

제2부 '귀환'은 그곳이 삶의 터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전히 연평도는 예측할 수 없는 포화의 불씨를 안고 있는 곳이지만, 선착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삶의 빛을 잃었던 그 시간 역시과거가 되고, 그곳에는 새로운 삶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10 | 11

제3부 '치유' 는 연평도 주민들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어쩌면 아물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아 냈다. 그 곳은 여전히 전면적인 위기와 불안한 섬이지만, 정작 섬안에 들어서면 한없이 고요함이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그 곳은 해군의 사격 훈련에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혼재하는 공간이기도하다. 포격을 당했던 마을은 이제 거의 복구가 되었지만, 그 곳 주민들의 내면에는 불안함, 삶에 대한 기대감, 치유에 대한 염원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의 포격 이후 연평도를 방문하면서,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날 · The Day #1, Pigment print, 120×180cm,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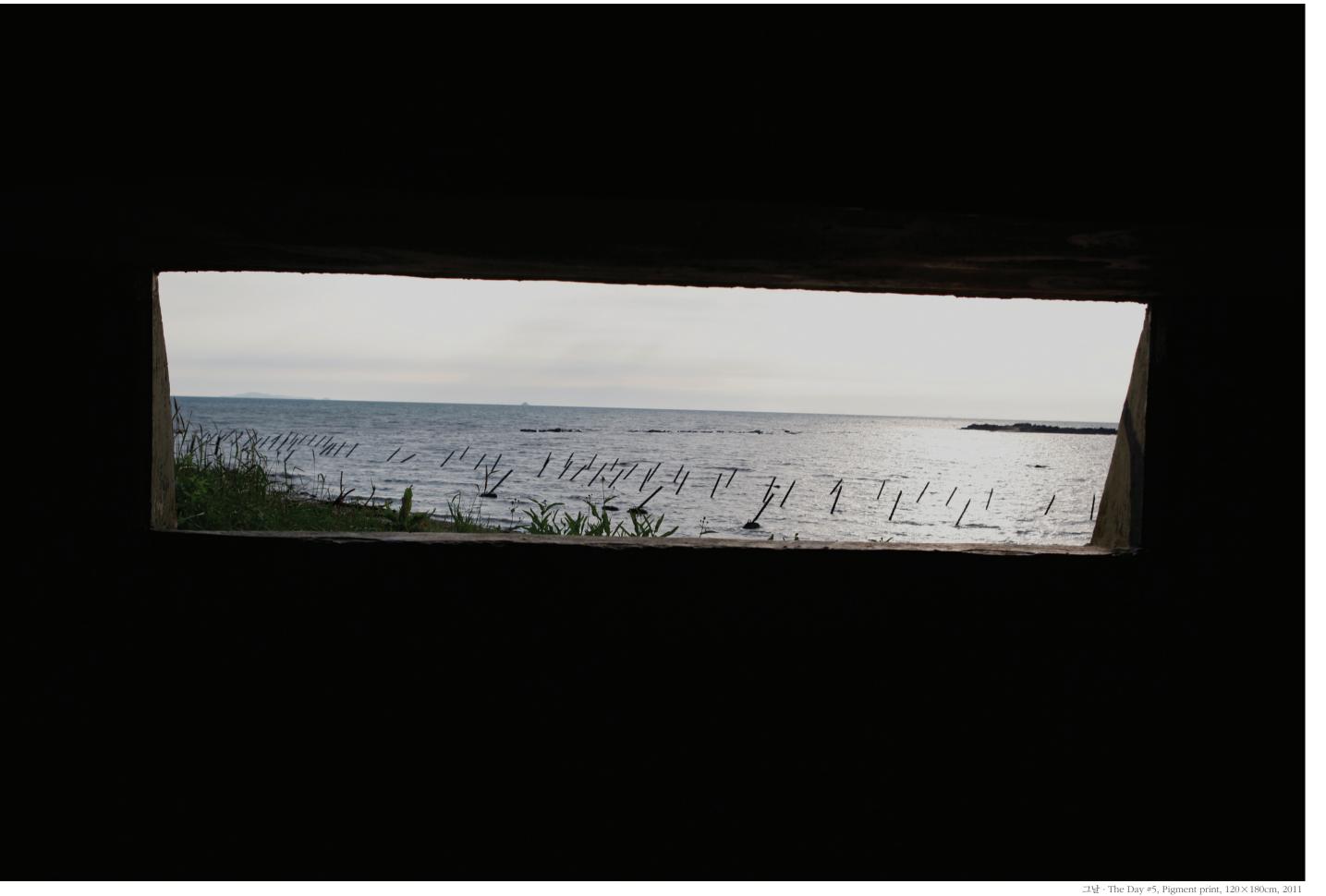
그날 · The Day #2, Pigment print, 50×75cm, 2010



그날 · The Day #3, Pigment print, 50×75cm, 2010



그날 · The Day #4, Pigment print, 50×75cm, 2010





그날 · The Day #6, Pigment print, 50×75c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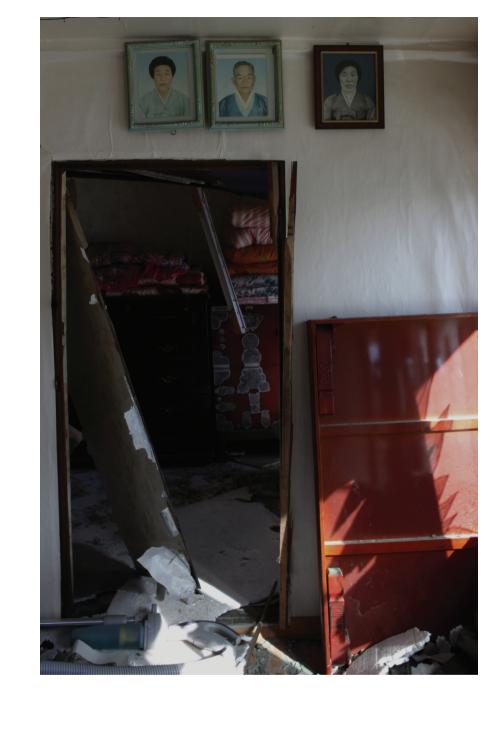
그날 · The Day #7, Pigment print, 50×75cm,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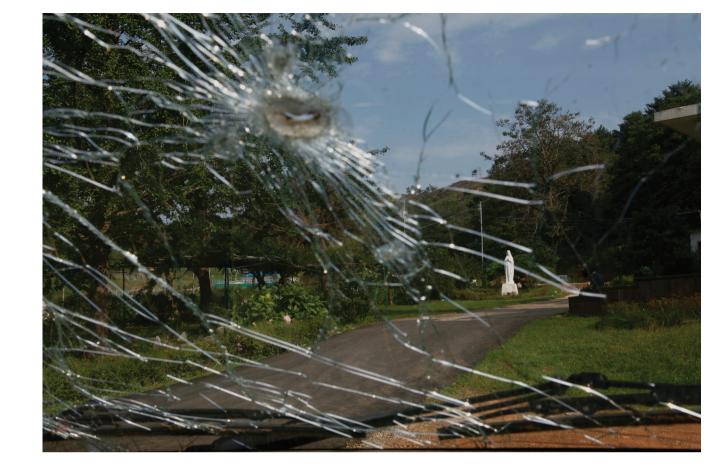
그날 · The Day #8, Pigment print, 120×180cm, 2010



그날 · The Day #9, Pigment print, 50×75cm,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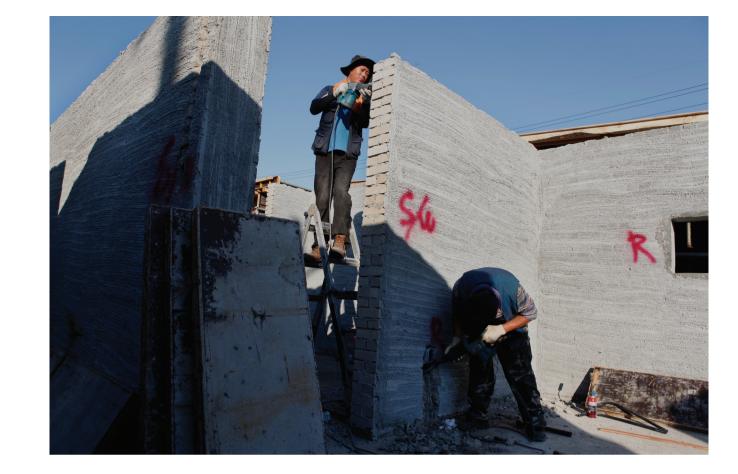
그날 · The Day #10, Pigment print, 50×75cm, 2011



그날 · The Day #11, Pigment print, 50×75cm, 2011



그날 · The Day #12, Pigment print, 50×75cm, 2011



그날 · The Day #13, Pigment print, 50×75cm, 2011



그날 · The Day #14, Pigment print, 50×75cm, 2014



그날 · The Day #15, Pigment print, 50×75cm, 2012



그날 · The Day #16, Pigment print, 50×75cm, 2011



그날 · The Day #17, Pigment print, 50×75cm, 2013

그날 · The Day #18, Pigment print, 50×75cm, 2011







그날 · The Day #19, Pigment print, 50×75cm, 2011



그날 · The Day #20, Pigment print, 120×180cm, 2014

그날·The Day

문정숙 | MOON JUNG SOOK moonjs0215@hanmail.net

Copyright © 2014 by MOON JUNG SOOK

All rights reserved

이 논문집은 2010년 11월 부터 2014년 4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